



With
KAU
Webzine

Twenty seven steps

새상을 향한 내 꿈을 향한 기회

새내기성공센터

목차 With KAU 함께 이루는 꿈

새내기성공센터 뉴스인사이드	
KAU Wine Day 특강	2
2023 재학생 멘토&멘티 명랑운동회	3
2023-1 재학생 멘토들의 멘토링 이야기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편아림과 보석들”	6
항공전자정보공학부 “새싹들”	7
신소재공학과 “신소재 꽃내기”	8
소프트웨어학과 “홍소학”	9
스마트드론공학과 “스드공 아기 송골매들”	10
SI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 “23학번이삼~”	11
공학계열 “임1이4”	12
항공교통물류학부 “자라나는 교물이들”	13
항공운항학과 “운항남들”	14
경영학부 “유근두근”	15
자유전공학부 “자유비행”	16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추천 도서 소개	
퓨처 셀프 : 벤저민 하디 저자(글) · 최은아 번역	17
With KAU 멘토&멘티 참여코너	
경영학부 “비즈니스”팀	19
9월 웹진 퀴즈 이벤트	
With KAU 웹진 퀴즈 풀고, 리뷰를 남겨주세요	26
새내기성공센터 2023년 10월 일정	
이달의 행사 일정	29



표지 [©한국관광공사 사진갤러리 - 정미혜] 저작권
 [촬영지역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With KAU 웹진은 네이버에서 제공한 나눔글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KAU Wine Day 특강운영

새내기성공센터에서는 9월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오는 9월 12일 항공우주센터 비전홀에서 'KAU Wine Day' 특강을 운영했다

이번 특강은 김은정강사를 초청하여 ▲와인은 어떻게 오픈해요? ▲우아하게 와인 마시는 방법 ▲와인 & 음식 콜라보레이션 ▲재미로 알아보는 와인 성격 테스트 등 세부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하여 와인 시음과 함께 다양한 와인 퀴즈로 참여 학생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김은정강사는 "질감이 무거운 요리로 갈수록 와인의 색상도 밝은 쪽에서 어두운 쪽으로 고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때에도 개인의 기호와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특강에 참여한 학생들은 "와인이라는 분야에 대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와인에 대한 기본 지식들을 얻어갈 수 있어서 정말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이지만 학교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아 배울 기회가 많지 않은 주제들을 다루어 주어서 신선하고 유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만족스럽다."고 참여소감을 전했다.

새내기지원팀장은 "다양한 일상기술 미니특강 주제를 발굴하여 학우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 특강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3 재학생 멘토&멘티 명랑운동회

2023 재학생 멘토&멘티 명랑운동회 성공적 마무리 ... 잊지 못할 추억을 쌓은 멘토와 멘티

지난 21일 목요일, 2023 재학생 멘토&멘티 명랑운동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새내기성공센터 주관으로 이번 체육대회가 교내 운동장에서 열렸다. 새내기성공센터-새내기지원팀은 각 멘토-멘티, 멘티-멘티, 멘토-멘토 간 교류 확대 및 우호와 친목의 목적과 학생 간의 협동성 및 사회성 고취를 통하여 명랑한 대학생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호 소통 및 협업을 통한 3중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랑운동회를 개최하였다.



▲멘티들을 위해 이 한 손가락을 바치는 멘토 선배



▲제한시간 안에 풍선 탑을 완성시키기 위해 열심히 풍선을 부는 모습

이번 종목은 작년과 같은 4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었다. 4개의 종목은 모두 풍선을 활용한 협동 종목으로서, ▲풍선 200개 및 비닐봉투를 이용하여 높은 탑을 만들어 세우는 풍선 탑 만들기, ▲참여 인원 10인이 순차적으로 해당 풍선 탑을 각 1회씩 멀리 던지는 풍선 탑 멀리던지기, ▲참여 인원 10인이 풍선 탑을 바통 삼아 순차적으로 이어달리는 풍선 탑 이어달리기, ▲만들어 놓은 풍선 탑 빨리 터트린 후 주변을 정리하는 풍선 탑 터트리기 순으로 진행이 되었다. 이후 4개의 각 종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점수가 높은 팀이 우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잊지 못할 청춘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는 새내기과 멘토

이번 대회는 작년보다 2팀이 많은 20팀이 참여하며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학부(과)에 상관없이 연합한 각 팀의 참여 인원은 10인으로 구성되었고 약 200명 정도의 재학생 멘토&멘티가 교내 운동장에 모였다. 팀원 모두는 모든 종목에 열의 있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비가 내린 후 선선해진 운동장을 열정으로 뜨겁게 만들었다. 이러한 열정에 맞추어 풍부한 장학금이 준비되었다. 1등 팀에게는 무려 우승 장학금 15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2등 팀에게는 장학금 100만 원, 3등 팀에게는 장학금 50만 원이 지급되었다.



▲1등 우승 상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받은 '전구교일'팀

치열한 접전 끝에 1등의 영광은 '전구교일'팀 에게 돌아갔다. 또한 2등의 자리는 '도란도란'팀이, 3등의 자리는 '최강운향'의 팀이 각각 차지하며,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하지만 수상과 상관없이 모든 팀들은 멘토-멘티, 멘티-멘티 간의 관계가 친밀해진 것에 의의를 두며 훈훈한 분위기로 대회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명랑운동회에 '빵빵아 옥지암'팀의 멘토로 참가하게 된 이하은(경영 22)은 “같은 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멘토와 멘티가 함께 참여하여 활동적인 행사를 통해 더욱 끈끈해지고 멘토링 팀 내에도 새로운 분위기를 환기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했던 행사였습니다.”라며, “무엇보다도 명랑운동회 같은 행사를 주최해주신 관계자분들께 멘토로서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멘티로 참여한 백민서(경영 23)은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놀고 오자라는 마인드였는데 팀원들의 파이팅이 저의 승부욕까지 자극해 정말 열심히 참가하게 되었습니다.”라며,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 멘토팀 멘티들과 또 한 번의 추억을 만들게 되었고, 연합한 다른 멘토팀의 멘토, 멘티님을 새로 사귀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향후 명랑운동회 같은 행사가 있다면 또 참가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에 “너무 있습니다. 같은 팀 멘티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고 앞으로 이런 활동이 많아진다면 다른 팀과 연합할 기회도 많아질 것으로 생각해 향후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또 참가 신청할 생각입니다.”라고 답하였다.



▲명랑운동회의 마무리 단체사진

이처럼 평소 학업과 과제에 치여 살던 우리 한국항공대학교 학생들에게 이번 명랑운동회는 무료하고 힘든 삶의 한줄기 웃음으로 남을 수 있었던 활동으로 기억될 것이다. 앞으로도 한국항공대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더 많이 마련되길 바란다.

출처 : 항공대미디어(<http://www.kaupress.com>)

고동근 기자 rhehdrms2003@kau.kr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편아림과 보석들”

멘토 편아림과 앞으로의 발전이 무궁무진한 새내기들을 ‘보석’으로 칭한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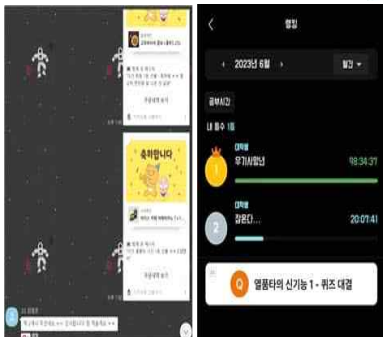
우리활동.



3월



6월



팀명

활동목적

참여소감

▣ 편아림과 보석들

- ☆ 새내기들끼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친목도모
- ☆ 학업 또한 놓치지 않도록 학점 관리 비법 전수

- ▣ 멘토 : 새내기 멘토링을 멘토로서 진행하면서 진정한 선배가 되었음을 몸소 느꼈습니다. 1학년 때 코로나로 인해 멘토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움에 남아 멘토가 된다면 여러 활동을 하고자 다짐했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2학기에도 멘토를 한다면 1학기보다 더 열정적으로 멘티들에게 여러 프로그램을 같이 할 것을 권하고 참여할 것입니다.
- ▣ 멘티 : 처음 회식 때 멘토님께 학교 생활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과 선배님께 항우기 졸업 후 진로를 어떤 방향으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항공전자정보공학부 “새싹들”

새싹들은 앞으로 어떤 모양이든지 푸르게 자라날 새내기들을 비유한 뜻입니다

우리활동.



3월



6월

팀명
활동목적

새싹들

- ☆ 새내기들의 성공적인 1학년 생활을 위해!
- ☆ 몸과 마음이 건강한 성인으로서의 첫 도약을 위해!

참여소감

- 멘토 : 올해로 2년째 새내기 멘토링의 멘토로서 활동했다. 매년 새로운 멘티들을 만났지만, 이번 멘토링 팀만큼 형식적인 관계를 넘어 친근한 관계를 형성한 것은 처음인 것 같다. 그만큼 멘티들의 부담을 줄여 주고 싶었고 편한 언니 누나로서 나를 대해주길 바랐는데 나를 통한 것 같아서 뿌듯했다.
- 멘티 : 멋진 멘토언니랑 알고 지낼 수 있어서 좋았다. 학교 활동을 다양하게 하시는 걸 보고 여러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반 친구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었다.

신소재공학과 “신소재 꽃내기”

신소재 꽃내기는 신입생을 뜻하는 새내기와 6명의 아이들이 꽃다발을 이룬다는 뜻을 담고 있음

우리활동.

3월



6월



팀명

활동목적

참여소감

▣ 최고수준

- ☆ 다양한 활동을 통한 선배와 후배의 유대감 형성
- ☆ 새내기를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참여하여 학교에 쉽게 적응

▣ 멘토 : 이번 멘토 멘티 활동이 두번째인데 멘티들도 저를 형처럼 잘 따라주고, 신경 써주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멘티들과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재미있었고, 유익했습니다.

▣ 멘티 : 새내기 멘토링을 통해 학교생활 꿀팁에 대해 알아가며 학교생활을 좀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형들을 어려워하는데 멘티들과 다같이 얘기하며 친해지다 보니 멘토님과도 친해지기 훨씬 수월했고 멘토님의 조언을 새겨들으며 학교생활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2학기도 재미있는 멘토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프트웨어학과 “홍소학”

멘토인 ‘홍지승’ 선배님을 대표하며, 소프트웨어학과를 어필하자는 의미의 팀명이다

우리활동.



]

3월

6월

]

팀명
활동목적

참여소감

홍소학

- ☆ 소학 신입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과 선후배 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함
- ☆ 대학 생활의 가이드와 학업 외 많은 활동을 경험하기 위함

- 멘토 : 고학년이 되어서 많이 1, 2학년때의 활발함을 많이 잃어가고 있었던 시기에 멘토를 맡으면서 새내기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서 에너지를 얻게 되었다. 멘토라고 제가 잘 이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멘티들이 항상 고맙다고 말해주는 한 마디에 보람을 느끼고 2학기에는 이번 1학기보다 더 좋은 활동을 기획해야겠다 생각하였다.
- 멘티 : 대학교 생활을 어떻게 적응해야할지 막막 했지만 멘토링 활동을 덕분에 개강 전부터 학교의 다양한 정보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또한 멘토링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많은 친목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너무 재미있고 유익한 멘토링 활동이었다.

스마트드론공학과 “스드공 아기 송골매들”

스마트드론공학과와 신입생들과 우리대학 교조

우리활동.



3월

6월



팀명
활동목적

참여소감

스드공 아기 송골매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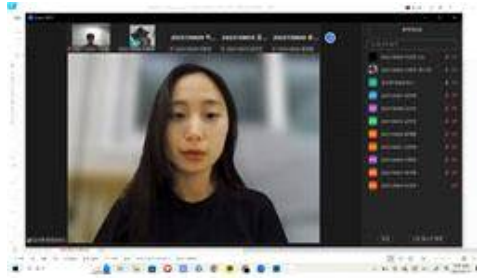
- ☆ 다양한 활동을 통한 멘토 멘티간의 우애 형성
- ☆ 대학생활에 빠른 적응

- 멘토 : 불과 1년전만해도 저도 신입생이었는데, 어느덧 학교에 적응하고 23학번 신입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멘토가 될 수 있음에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학생회장뿐 아니라 다양한 직책과 역할을 맡고 있다보니, 멘티들에게 좋은 경험과 다양한 길을 소개해줄 수 있어서 좋았지만 같이 즐기고 놀 수 있는 활동을 많이 못해준 것 같아서 아쉽고 미안했다.
- 멘티 :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환경이 크게 바뀌었고, 학기초에는 적응이 힘들었다. 그런데 멘토링을 통해 새로운 동기들과 선배님을 만나 친해지고, 선배님께 학교생활 경험을 들으니 적응하는데 도움 많이 된 것 같다.

시 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 “23학번이삼~”

뽕뽕하게 23학번으로 학교에 입학한 본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활동.



]

3월

]

6월

]

팀명
활동목적

참여소감

▣ 23학번이삼~

- ☆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추후 자발적 참여 유도
- ☆ 대학생활을 문제없이 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 수칙 전수
- ▣ 멘토 : 랜덤으로 배정되는 멘토와 멘티들이었는데 거부감 없이 지내주어서 고맙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의지해달라고 여러 차례 말했었는데 정말로 몇몇 멘티들이 의지해주어서 도움을 줄 수 있던 게 만족스러웠다. 무엇보다 서로 트러블 없이 한 학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좋았다.
- ▣ 멘티 : 다양한 활동들을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도 교수님이나 현직자에게서 좋은 정보들도 얻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 ▣ 멘티 : 많이 낯선 대학 생활 초반에 조언이나 정보 많이 주셔서 좋았고 같은 과 멘티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어요!!

공학계열 “임1이4”

우선 우리 팀 멘티들이 4명의 ‘이씨’와 1명의 ‘임씨’로 구성되어 위와 같이 팀 이름을 정했다. 또한 단순히 성을 나타내는 것을 넘어, 이들이 임원과 이사처럼 우리 사회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활동.



3월

6월

팀명
활동목적

참여소감

▣ 임1이4

- ☆ 새내기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위한 시간관리 노하우 전수
- ☆ 다양한 활동을 통한 멘토 멘티간의 우애 형성

- ▣ 멘토 : 멘티들이 아무지게 학교에 적응한 것과 학교의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고 고마웠음. 또한 멘티들을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정보도 알 수 있어서 멘토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음
- ▣ 멘티 : 멘토링 활동을 통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다. 또한 학교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좋았다.
- ▣ 멘티 :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항공교통물류학부 “자라나는 교물이들”

자라나는 교물이들은 새롭게 입학하는 23학번 새내기들이 이 멘토링을 통해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팀명입니다.

우리활동.



3월

6월

팀명
활동목적

참여소감

▣ 자라나는 교물이들

- ☆ 다양한 활동을 통한 멘토 멘티의 우애 강화
- ☆ 새내기들의 알찬 학업활동을 위한 스터디 코칭

- ▣ 멘토 : 2년차이가 나는 멘티들이라 조금 걱정도 있었지만 멘티들이 너무나 잘 따라주고 활동에 열심히 응해줘서 행복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 ▣ 멘티 : 학교 와서 다른 사람들을 사귀어야 한다는 것이 스트레스였는데 멘토링활동 덕분에 자연스럽게 새로운 선후배 및 동기들을 많이 사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 ▣ 멘티 : 혼자 학교에 입학하여 막막하기도 하고 궁금한게 많은데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랐는데 이번 멘토링을 통해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 좋았습니다.

항공운항학과 “운항남들”
운항에 진심인 남자들의 모임

우리활동.



3월

6월

팀명

활동목적

참여소감

▣ 운항남들

- ☆ 새내기 학우들과의 친목도모와 학교생활 적응기
- ☆ 멘토링 활동을 통한 후회없는 1학년 생활을 장식하기

- ▣ 멘토 :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해서 멘티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다음학기에는 지출비도 조금 나눠서 쓰며 회식을 2달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경우로 가고 시뮬레이터와 같은 재밌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 ▣ 멘티 : 신입생이었기에 모르는 점이 많았지만 3중 멘토링으로 이러한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 멘티 : 1학기에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동기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경영학부 “유근두근”

유근 멘토님과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두근두근

우리활동.



3월

6월



팀명

활동목적

참여소감

▣ 유근두근

- ☆ 서로를 돕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참여
- ☆ 병아리 신입생들을 위한 꿀팁 전수

▣ 멘토 : 항상 그렇듯 재밌었다. 물론 말을 안 듣는 금쪽이 모먼트가 없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각자 자기의 개성을 보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말을 듣기도 하고 안듣기도 했다. 이번학기도 스스로 다른 친구들과 친해진 멘티들에게 고맙고 즐거워 보여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2학기때도 이 텐션으로 갔으면 좋겠다.

▣ 멘티 : 입학 초 대학 생활에 관해 아는 것 하나 없이 입학해 두려움도 많았고 조심스러웠었는데 멘토멘티 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정보도 얻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멘토 유근 언니랑 친해질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들도 멘토님이 다 찾아서 보내주신 덕분에 대학생활... 이젠 껌입니다!

자유전공학부 “자유비행”

자유전공학부가 자유롭게 자신의 진로와 학과를 선택한다는 특징이 자유로운 경로로 비행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은 팀명을 지음

우리활동.

3월



6월



팀명

활동목적

참여소감

▣ 자유비행

- ☆ 새내기들이 대학 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
- ☆ 진입할 전공과 진로에 대한 이해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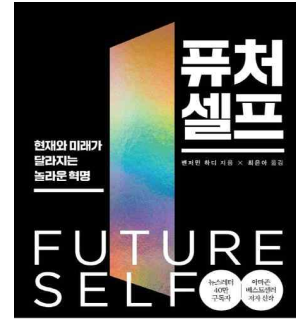
- ▣ 멘토 : 자유전공학부 신입생들을 만나며 작년 특수 학부로서 겪었던 어려웠던 점이나 이외에도 다양한 팁들을 전수하며 뿌듯하였고, 새로운 후배들을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웠다. 멘티들이 잘 따라준 덕분에 계획했던 것들을 최대한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고마운 점이 많다.
- ▣ 멘티 : 멘토 멘티 활동을 진행하면서 1년 먼저 자유전공학부를 거친 선배님의 경험과 조언을 통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같은 조원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서로 친해지며 발을 넓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추천 도서 소개

미래의 자신을 아는 것은

강력하고 목적 있는 삶의 열쇠다.

이 책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미래의 나’를 적용하는 과학 분야 세계 최고의 전문가,
자기계발 분야 파워블로거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의 신작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 토니 로빈스 강력 추천!

현재와 미래를 더 가치 있게 바꾸고 싶다면,
‘미래의 나’와 연결하라!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미래의 내’가 현재로 시간 여행을 왔다고 상상해보자. ‘현재의 나’는 해야 할 일은 미뤄둔 채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당장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에 생각 없이 돈을 쓰고, ‘다음 달의 나’에게 결제를 미룬다. 자극적이고 간편한 정크 푸드를 즐겨 먹으며 건강은 생각하지 않는다. 어린 자녀와 눈을 맞추고 시간을 보내기보다 잔소리와 고성이 오가는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낸다. 이 모습을 본 ‘미래의 나’는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 혹시 지금의 내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미래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는다면, 현재의 내가 좀 더 나은 모습이기를 원한다면 이 책이 해답을 제시해줄 것이다.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은 우리가 인생에서 쉽게 놓치는 중요한 진실에 이르게 한다. 즉, 미래의 나와 연결될수록 현재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이 책은 미래의 내가 어떤 모습일지 깊이 생각해보고, 지금 그 사람이

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인생 지침서이다. 상상한 미래 자아는 현실에서 원동력이 되어 목표와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이에 맞게 행동하게 만든다. 그렇기에 우리가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거나 의지가 약해질 때마다, 혹은 작은 성취를 맛본 후 다음 목표를 정해야 할 때 이 책을 옆에 두고 수시로 꺼내 보기를 권한다.

이 책의 저자인 벤저민 하디는 저명한 조직심리학자로, ‘미래의 나’를 적용하는 과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다. ‘미래의 나’와 관련된 연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는 이 주제를 완벽하게 다룬 책을 발표했다. 그의 오랜 연구 결과와 집약된 이론을 국내에서 책으로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는 팟캐스트와 유튜브, 웹사이트, 기업 강연을 통해서도 ‘미래의 자신’을 명확하게 하고, 목표한 방향으로 이끄는 실용적인 전략을 공유하며 많은 사람의 성장과 발전을 돕고 있다.

이 책은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파트1은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 7가지를, 파트2는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를, 파트3은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각 단계마다 자신을 점검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 활동들이 포함된 워크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 장의 핵심 내용은 일러스트를 통해 기억에 선명하게 남도록 도와주고, 파트가 끝날 때마다 KEY POINT로 요약해서 정리해준다. 특히 ‘미래의 나’와 연결하

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유명인들의 일화를 통해 소개해 재미를 더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이 책은 단순히 '미래의 나'를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최고의 안내자 역할을 할 것이다.

미래의 나와 연결되는 수준이 현재의 삶과 행동의 수준을 결정한다. 연구 결과가 명확히 보여주듯이 미래의 나와 더 깊이 연결될수록 지금 더욱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미래의 내가 어떤 모습일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러면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위해 계획을 잘 세워 효과적인 투자를 하게 되며, 열심히 운동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일탈 행위나 자기 파괴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은 줄어든다.

'프롤로그' 중에서, p.27-28

With KAU 멘토&멘티 참여코너

3중멘토링 멘토&멘티 인터뷰 “비즈니스”팀 이하은멘토, 박수연멘티, 백민서멘티



새내기성공센터에서 시행하는 3중멘토링 프로그램은 신입생과 재학생선배, 외부전문가멘토, 지도교수멘토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신입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KAU 3중 멘토링 멘토-멘티 인터뷰 27호에서는 경영학부 "비즈니스"팀의 이야기를 담아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인터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1. 먼저, 멘토팀명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하은 멘토 : 안녕하세요, 경영학부 팀 '비즈니스'의 멘토 이하은입니다. 학기 초 멘토링 팀을 구성할 때, 경영학부 소속으로써 팀명을 작명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를 반영하여 'Business'라는 단어의 철자에 각각의 뜻을 입혀 팀명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Best, Unique, Smart, Initiative, Nobel, Experience, Special, Support)라는 8개의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Business'라는 단어가 완성되고 앞서 말한 8개의 단어는 1년 동안 저희가 경영학부 학생으로서 이루고자 한 덕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Q2. 다른 멘토팀 보다 "Business"팀만이 가지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이하은 멘토 : 우리 팀의 최대 장점은 '도전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멘토와 멘티 모두가 '일단 해보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좋은 기회가 있으면 다 참여해보자는 생각으로 활동을 진행하는 편인데요, 덕분에 많은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주려고 하는 배려심도 저희 팀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부가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백민서 멘티 : 우리 팀의 장점은 우선 모두가 친하다는 것입니다. 1학기 때부터 수업도 겹치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멘토님은 물론 멘티들끼리도 어색하게 지내는 사람 없이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 가지 교내 활동들도 참여율이 높았고, 학교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함께 했다는 것이 우리 팀을 더 끈끈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하은 멘토님이 이 팀에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멘토님은 학교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 안내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시간을 내서 같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또 성년의 날이나 시험 기간 같은 특별한 날에 간식이나 편지를 챙겨주셔서 항상 저희를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멘토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의 활동을 더욱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

습니다. 또한, 멘토님이 교내 대회에서 수상하는 모습과 교수님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셨던 모습이 저도 더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고싶다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박수연 멘티 : 추진력과 적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멘토님께서 공지를 정말 누구보다 빠르게 카톡방에 알려주시고 같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은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멘티들 또한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들에 관심을 가지고 해서 저희 팀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멘토님의 추진력과 멘티들의 적극성은 정말 다른 팀들에 비해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Q3. 외부전문가멘토 간담회에서 각 동문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하은 멘티 : 멘티들과 함께 듣고자 했으나 개인적인 일정으로 시간이 안되어 저는 8월 3일 진행한 ‘삼성선물/통화 선물 및 환리스크 연구관리’에 대한 멘토링을 신청하였습니다. 해당 멘토링은 경영학과 졸업동문께서 진행해주셨는데 아무래도 평소 관심이 있던 주식, 증권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욱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직무소개에 대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고 이외에도 학교 생활에 대한 조언이나 추가적인 스펙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들을 수 있어서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백민서 멘티 : 저는 이번 방학에 네이버에서 근무하고 계신 멘토님의 강의를 선택했습니다. 1학기에 들었던 컴퓨팅 강의에서 각자 원하는 프로그램을 파이썬으로 만들고 이에 대한 발표를 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팀원들과 함께 만들었던 프로그램이 알고리즘 음악 추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유튜브 뮤직을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알고리즘의 능력을 절실히 느끼고 있던 때에 내가 배운 지식 안에서 나도 이걸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에서 시작한 것이었는데 많은 시간 끝에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한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교수님도 과제물에 대한 칭찬을 해주셔서 알고리즘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근데 마침 멘토님께서 AI 음악추천에 관련한 업무도 맡고 계셔서 꼭 강의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실제 일하시는 과정과 결과에 한 설명을 듣게 되어 좋았고, 앞으로 더 다양한 분야에 쓰이게 될 알고리즘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또 나의 진로에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박수연 멘티 : 저는 8월 21일에 진행되었던 네이버/AI 음악추천, 네이버 검색 서비스 기획을 담당하고 계신 선배님의 멘토링을 선택하였습니다. 기획 부분에도 많은 관심이 있어 ‘네이버/AI 음악추천, 네이버 검색 서비스 기획’을 신청하였습니다. 대기업의 기획파트를 담당하시기에 더욱 관심이 갔고, 경영학과를 졸업하신 선배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취업을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난관들이 있었는지 궁금하여 선택했습니다.

Q4. 흥미진진 MBTI(STRONG) 해석특강에 참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이하은 멘티 : 성격유형분석검사(MBTI)를 맹신하지는 않지만, 스스로에 대한 대략적인

객관적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종종 검사를 진행해보는 편입니다. 저는 주로 ESTJ와 ISTJ유형이 번갈아가며 나오는데요, 해당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성격특성에 대한 장점과 보완점을 알 수 있어, 이를 바탕으로 자아성찰을 가지곤 합니다. 강점인 부분은 더욱 끌어올리고 부족한 점은 채워가는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번외로, 다양한 사람들과의 새로운 자리에서 아이스브레이킹을 하기 좋은 주제여서 검사를 미리 해두는 편이기도 합니다:)



MBTI에 대해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잘 안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 더욱 더 잘 알 것이고 나아가 남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 MBTI 해석특강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백민서 멘티 : 요즘 엠비티아이가 열풍하고 있는데, 시중에 나와있는 엠비티아이는 전문적이지 않고 알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의 설명이 듣고 싶어서 특강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내 성격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고 다른 멘티들과 멘토님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게되면서 친해지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엠비티아이를 미디어를 통해서만 접해서 약간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특히 내향형인 사람과 외향형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이 특강을 통해 다시 생각을 고칠 수 있어서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수연 멘티 : 요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MBTI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기본질문이 될 정도로 MBTI가 유행이기 때문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또한, 이렇게 유행인

Q4. 1학기 동안 흥미진진 특강 이외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하은 멘토 : 많은 활동을 함께했지만, 아무래도 저에게는 성년의 날을 챙겨준 활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해당 활동은 제가 멘티였던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였기에 멘토가 되었을 때 꼭 해주고 싶었던 활동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꽃 한송이가 아니라 평생에 한 번 뿐인 대학교 1학년으로서의 성년의 날 축하하는 멘티로서 받았던 것들 중 가장 감사하고 의미가 남다른 일어서 꼭 멘티들에게도 제가 느꼈던 그 기분을 경험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멘티들의 대학 생활과 그 이후가 아름답고 꽃길만 같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이벤트가 멘티들에게 잘 전달되어졌길 바랍니다.

백민서 멘티 : 저는 멘티들과 멍때리기 대회에 나갔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전부

모여서 누가 더 잘하는지 시간을 재보기도 하고 대회를 진행하면서도 서로 응원하고, 웃고 떠든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대회가 멘티들과 친해지는 계기가 된 것 같고, 수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적응하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시험을 준비하면서 정신 없고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많았는데 이 대회에서 일부러라도 생각을 안하려고 하고 차분히 앉아 명상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힐링이 되는 활동이었습니다. 이후로도 몸이 힘들어질 때마다 명상이나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중이라서 더 크게는 저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드는데도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Q5. 이번 3중 멘토링을 통해 느낀 점이나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박수연 멘티 : 학교 졸업생분을 직접 모시고 특강을 들은 것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졸업하신 선배가 어떻게 취업을 준비했는지, 대외활동들은 어떤 것들을 했는지 등 정말 자세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특강을 들으며 정말 ‘생각보다도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체감했고, 이 준비를 순차적으로 잘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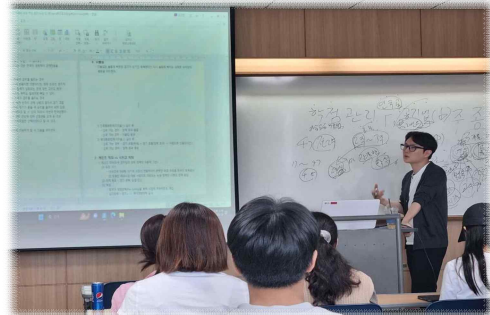
이하은 멘토 : 정말 멘토링 활동이 얼마나 많은 애정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멘티였을 시절 저를 챙겨주시던 멘토 선배님이 얼마나 저희를 생각하며 많은 것들을 추진했던 건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멘토로 팀을 이끌어가면서도 인간관계에 대한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멘티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지 고민하며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백민서 멘티 : 원래는 모르는 사람이나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얘기도 잘 못하고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3중 멘토링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방법을 배워간 것 같습니다. 처음엔 낯을 가려서 만나서도 카톡에서도 대답을 잘 못했는데, 팀원들 모두 허물없이 대해주고 반응도 잘 해주어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수업에서 우연히 만나면 같이 듣기도 하면서 먼저 다가가는 방법도 알려준 팀원들이라 굉장히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해진

멘티들과 여러 얘기들을 하면서 내 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들으면서 졸업 후 다양한 진로분야에 대해 알아가기도 하고, 내 미래를 조금이나마 설계하는 시간을 갖게되어 좋았습니다. 또 이런 생각들을 졸업하신 선배 멘토님의 경험담을 들으며 정리할 수 있었고, 미래에 대한 걱정만 하는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중 멘토링은 저의 내면의 성장을 도와준 소중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함께 모여 밥을 먹는 등의 다양한 활동도 멘토링 활동에 새로운 환기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수연 멘티 : 3중 멘토링을 통해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멘티들과도 같이 활동하며 친해질 수 있었고, 정말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취업 방면과 관련된 다양한 특강들을 들으며 미래에 어떻게 취업을 할지 큰 틀을 잡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중점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백민서 멘티 : 이번 겨울 방학 때는 다같이 놀러가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이니만큼 스키나 스케이트처럼 활동적인 스포츠를 하는 것도 좋고, 보드게임 카페처럼 다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본가가 멀어서 만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줌으로 만나서 똑같은 음식 먹으면서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글램핑장 같은 곳을 같이 가서 캠프 파이어도 하고 고기도 구워먹으면서 단합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활동적인 것 말고도 토익같은 시험을 같이 준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줌을 키고 같이 공부를 하거나 각자의 계획표를 공유하면서 서로 점검해주고 격려해주는 시간을 가진다면 공부하기도 덜 지루하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유대감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Q6. 방학 기간에 멘토-멘티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하은 멘토 :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활동 중 하나로 캠핑을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학기 중에는 하기 힘들 활동이고 또 함께 재료를 구매하고, 맛있는 음식도 조리해 먹고, 밤새 수다를 나누는 과정에서 모두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가벼운 나들이나

박수연 멘티 :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같이 대외활동을 알아보며 공모전에 나가거나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함께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토익이나 오픽,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등과 같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동기 부여가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7. 나의 멘토, 멘티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하은 멘토 : 멘티들에게 바라는 점은 없습니다. 지난 1학기 동안 저는 매번 저희 멘티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주변에 하고 다녔습니다. 누구보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멘토가 어떤 말을 해도 그저 좋다고 열심히 반응해주며 공감해준 멘티들에게 무척 고맙기만 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해주지 못한 것에 아쉬울 따름입니다. 다들 남은 대학 생활에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하고 싶은 일을 잘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백민서 멘티 : 우리 멘티들 앞으로 계속 수업도 같이 듣고 대학생활 같이하게 될텐데 지금 쌓은 이 추억 잊지 말고 행복하게 간직했으면 좋겠고, 고민이 생긴다면 부담 갖지 말고 찾아와서 털어냈으면 좋겠어요. 위로는 좀 서투러도 들어주는 것은 잘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남은 활동들 많이 없는데 최대한 많이 참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멘토님 지금까지 저희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이대로만 있어 주셔도 큰 힘이 돼요! 항상 감사합니다

박수연 멘티 : 정말 생각해봐도 바라는 점이

없습니다. 멘토님이 학교에서 공지해주는 것들을 포함하여 멘티들에게 유용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정보들을 정말 빠르게 알려주셔서 정보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르는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질문해도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헛갈리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Q7. 3중 멘토링에 참여하고 싶은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하은 멘토 : 3중 멘토링 활동은 대학교라는 새로운 장소에서 선배와 후배로서, 또한 학교의 동문으로서, 그리고 친한 친구로서 인연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멘토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팀을 꾸려가느냐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구성원의 스타일에 따라 팀의 분위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3중 멘토링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우분들께서는 딱 한가지 '책임'이라는 단어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멘토는 멘토로서 멘티들과 잘 놀아주고 또 선배로서 잘 챙겨주는 책임을 잊지 마시고, 멘티 역시 멘토가 여러 고민 끝에 공유한 여러 정보나 활동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멘티로서 잘 반응해주시는 그런 책임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완벽한 활동은 없듯이 멘토링 또한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3중멘토링 활동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멘티와 멘토를 모두 경험해본 저로서는 해당 활동에 참여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Q9. 2024학년도 3중 멘토링에 멘토로 참여한다면?

백민서 멘티 : 제가 3중 멘토링의 멘토로 참여하게 된다면 멘티 때보다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배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다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이하는 멘토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한명 한명에게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도와줄 것 입니다. 아직 낯을 가리는 성격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라서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번 멘토링의 경험 덕분에 수월하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멘토링이 멘티들만 성장하고 학교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학교의 프로그램 등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성장하는 멘토링 팀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박수연 멘티 : 만약 3중 멘토링에 멘토로 참여하게 된다면 저희 멘토님처럼 빠르게 공지를 알려주고 학교에서 공지해주는 내용들 이외에 유용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하고 싶습니다. 멘티들을 이끄는 멘토인 만큼 학교의 전반적인 생활이나 정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학과 홈페이지, 학교 공지사항 등을 미리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With KAU 9월 웹진 퀴즈 EVENT

Q. 우리대학 장학금 수혜자격으로 수업연한 및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옳바른것은?

- ① 4학기 이내, 8학점 이상
- ② 6학기 이내, 10학적 이상
- ③ 8학기 이내, 12학점 이상
- ④ 10학기 이내, 14학점 이상

참여방법

메일송부 (kaussc@kau.ac.kr)
인적사항은 학번+성명+핸드폰번호

응모기간

2023.10.04 ~ 2023.10.20

당첨자선물

정답자 추천하여 소정의 기프티콘 발송

당첨자발표

With KAU 28호

With KAU 8월 웹진 퀴즈 EVENT 당첨자

A. ④ 10권, 14일

2023****54 정○철

2022****18 노○수

2023****86 인○형

2023****48 박○현

2023****77 이○영



※ 제출한 핸드폰 번호로 기프티콘 발송

With KAU

멘토&멘티 참여코너

With KAU 웹진에 멘토&멘티가 참여하는 코너를 신설하였습니다.
3중멘토링인터뷰, 도전 백주부, KAU 백일장 코너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수록해주세요

코너명	코너소개	참여선물
멘토&멘티 인터뷰	월별 3중멘토링 활동에 대한 인터뷰를 합니다. 신청하신 멘토 또는 멘티에게 센터의 전문멘토가 취재하여 활동내용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도서상품권 (5만원)
도전 백주부	시기에 맞는 요리 및 레시피를 소개해 주세요	
KAU백일장	월별 멘토&멘티가 직접 쓴 독서감상문, 여행기, 수필 등 자유로운 내용을 소개합니다. "내용, 주제 자유"	

응모방법 : kaussc@kau.ac.kr

문의전화 : 새내기성공센터 02-300-0250~1



2023년 10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Plan	2 Plan	3 Plan	4 Plan	5 Plan	6 Plan 2023-2 어깨동무멘토링 장학금지급	7 Plan
8 Plan	9 Plan 3중멘토링 아이디어공모전 접수마감	10 Plan ←----- 새내기성공센터 흥미진진 진로탐색 프로그램 상시진행 ----->	11 Plan	12 Plan	13 Plan	14 Plan
15 Plan	16 Plan ←----- 새내기성공센터 흥미진진 진로탐색 프로그램 상시진행 ----->	17 Plan	18 Plan 2023-1 학교물 성과확산발표회	19 Plan	20 Plan	21 Plan
22 Plan	23 Plan ←----- 새내기성공센터 흥미진진 진로탐색 프로그램 상시진행 ----->	24 Plan	25 Plan	26 Plan	27 Plan	28 Plan
29 Plan	30 Plan	31 Plan				



[새내기성공센터 유튜브 채널]

Follow

us:

<http://fsc.kau.ac.kr>

**now
ONLINE**



**KOREA AEROSPACE UNIVERSITY
FIRST YEAR SUCCESS CENTER**

